

수업 활동지 집필 북악중학교 사회교사 선보라
신관중학교 사회교사 전진현
부산장안고등학교 사회교사 최혜연



분야

청소년 인문/사회
청소년>생태/환경

키워드

#기후위기 #환경문제 #생태 #지속가능한소비 #탄소중립

책 소개



《지구를 위한 소비 수업》은 사회 교사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집필한 책으로, 일상의 익숙한 장면에서 출발해 생활 속 소비재들이 품고 있는 환경문제와 그 대안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본다.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환경 수업을 진행해 온 저자들은 청소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 면에서도 독자가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했다.

각 장은 스마트폰, 화장품, 플라스틱 용품, 티셔츠, 택배 상자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에서 시작한다. 물건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혹은 우리 손을 떠난 다음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자료, 시각 자료로 친절하게 안내한다. 또한 탄소중립, ESG, 그린 택소노미 등 환경 관련 뉴스를 이해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를 따로 정리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문해력을 높인다.

《지구를 위한 소비 수업》은 환경오염, 기후위기의 문제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지금껏 누려 온 생활을 돌아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소비’라는 행위에 주목해 우리의 행동을 다시 점검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막막할 수 있지만 지금 가진 물건을 더 오래 쓰기로 결심하는 것, 물건을 구입하기 전 잠시 멈춰 생각하는 것, 사소한 낭비의 습관을 돌아보고 고치는 것부터 변화는 비롯된다. 지구와 공존하는 소비, 나의 하루에서 시작해 보자.

차례

1차시.

**스마트폰,
빛나는 화면 뒤에
가려진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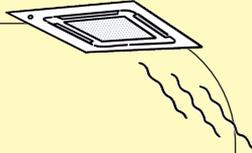
2차시.

**내 피부에도,
지구에도
좋은 화장품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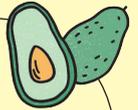
3차시.

**이제는
화석연료에 꽂힌
플러그를 뽑을 시간**



4차시.

**아보카도 샌드위치가
지구를 메마르게 한다고?**



5차시.

**플라스틱,
골칫덩이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6차시.

**자동차가 멈추면
지구가 숨 쉰다**



7차시.

**화려한 패션이
지구에 남긴 그림자**



8차시.

**택배 상자가
전국을 오가는 사이**



1차시. 스마트폰, 빛나는 화면 뒤에 가려진 진실



들어가기

1.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 중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2. 위에서 떠올린 전자제품을 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앞으로 그 제품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 왜 바꾸고 싶은지 적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전자 쓰레기를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는 왜 유해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 있을까요?(24~25쪽)

2. 전자제품을 자주 교체하면 전자 쓰레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자제품에 쓰이는 자원 또한 문제가 됩니다. 전자제품과 자원에 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문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28~33쪽)

생각 넓히기

인터뷰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고장 난 전자제품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전자제품 수리권이 무엇일까?>

앵커 오늘은 '전자제품 수리권'이라는 생소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리권은 수리할 권리를 말하는 걸까요?

환경운동가 네, 맞습니다. 전자제품이 고장 나면 버리지 않고,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전자제품 수리권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전자제품들은 폐기되는 순간 중금속, 다이옥신 등과 같이 환경과 인체에 위험한 유해 물질이 섞인 쓰레기가 됩니다. 오늘은 전자제품 폐기를 줄일 수 있는 '전자제품 수리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전자제품 수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운동가 서울환경연합에서 2022년 7월 한 달간 진행한 '전자제품 수리 실패 사례 모집'을 통해 국내 전자제품 수리 실태를 확인했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 TV, 세탁기, 노트북, 휴대폰, 선풍기 등 48가지의 가전/전자제품의 실제 수리 실패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부품이 없다'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A/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체에서 수리를 거절했다'가 많았습니다. '수리점이 없어서, 수리비가 구매비보다 비싸서'라는 사유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수리를 문의하니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나, 사용하기에도 더 좋으니 새로 구매하라'고 제안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자사 서비스 센터에서만 수리할 것을 강제해 수리 비용을 높이거나, 새 제품 구매를 강요해 구제품 폐기를 늘리는 등 수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환경운동가 소비자의 수리권 주장을 통해 교체 가능한 부품과 수리 기술을 민간 수리업체와 공유할 것,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등의 의무를 기업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전자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수리 용이성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리권은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은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전자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가 _____

출처: KBS1 라디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2022. 10. 13. 방송 재구성

1. 전자제품 수리권이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34~37쪽)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1.

2. 마지막 앵커의 질문에 환경운동가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활동하기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 새로 구입해 교체하고 싶은 것을 골라 아래 표에 적어 봅시다.

(내가 아닌 다른 가족이 많이 쓴다면 인터뷰를 하여 작성해 봅시다.)

전자제품 종류	사용기간 (○년 ○개월)	교체를 희망하는 이유	만약 1년을 더 써야 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2차시. 내 피부에도, 지구에도 좋은 화장품을 찾아서



들어가기

1.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봅시다.

(친구 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적어도 좋습니다.)

예) 스킨(1개), 립스틱(3개)

2. 위에 적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를 적어볼까요?

종류	이유
예) 스킨	피부 보습을 위해서

내용 확인하기

1.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48쪽)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을 ()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에 대한 ()을 보장하고,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해 ()을 확보하기 위해 ()부터 시행되었다.

2. 소비자가 화장품에 쓰인 성분을 알고 있을 때 유용한 점을 정리해 봅시다.(52쪽)



3. 자외선차단제(선크림)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백화현상은 무엇인지,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산호초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서 적어 보세요.(54~57쪽)

백화현상이란?	자외선차단제 성분	산호초를 보호하는 방법
→		
→		

4. 화장품에 들어 있는 마이크로비즈(미세플라스틱)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마이크로비즈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마이크로비즈가 들어 있지 않은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58~60쪽)

마이크로비즈란?	마이크로비즈의 문제점	마이크로비즈가 없는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
→		
→		

생각 넓히기

1.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적어 봅시다.



마이크로비즈 - 물건이야기 프로젝트

2. 자료에 제시된 용기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크림 제형의 화장품을 끝까지 사용해 본 적 있나요? 화장품 용기를 거꾸로 세워 놓거나 용기 안에 손가락을 간신히 넣어서 남은 화장품을 긁어 모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의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는 화장품 용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너보틀은 미국 소비자 보고서 기준 내용물이 25%까지 남는 기존 용기와 달리, 1% 내외로 잔량을 줄일 수 있어 내용물을 낭비 없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처: 이너보틀 홈페이지(<http://innerbott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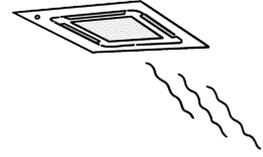
활동하기

고려 사항을 토대로 나에게 적합하고 환경에도 부담이 적은 화장품을 찾아봅시다. 해당 화장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또는 그림)을 작성해 봅시다.

고려 사항

- 내 피부 고민을 보완해 줄 수 있는가?
- 향이 좋은가?
- 발림성이 좋은가?
-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하기 쉬운가?
- 피부 건강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없는가?
- 환경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없는가?

3차시. 이제는 화석연료에 꽂힌 플러그를 뽑을 시간



들어가기

1. 전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워 보세요.

독서	전등 켜기	인터넷 서핑	공부
얼음 만들기	시원한 물 마시기	냉장고 작동시키기	에어컨 틀기
머리 말리기	버스 타기	스피커로 음악 듣기	밥하기
달리기	온열기 틀기	지하철 타기	컴퓨터 게임

2. 남은 항목을 보고 전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나의 삶이 어떨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적어 보세요. (68~70쪽)

교사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은	전기는 ()에서 만들어져요.
헤민	발전소에는 ()를 태우는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지열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이 있어요.
동하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는 화력발전 비중이 ()%로 총 발전량의 3분의 2를 의존하고 있어요.
교사	모두 책을 잘 읽었네요!

2.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찾아 적어 보세요. (69~73쪽)

①

②

3.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기업,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73~78쪽)

국가	
기업	
소비자	

생각 넓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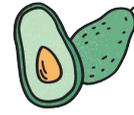
책 79~83쪽을 읽고 아래 절차에 따라 4인 모둠 토론을 해 봅시다.

토론 주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한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토론 주제에 대해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2. 친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정리하여 바깥 네모 중 한 칸에 기록해 보세요.
3. 공통된 의견이나 합의된 의견을 중앙의 공간에 적은 뒤 전체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4차시. 아보카도 샌드위치가 지구를 메마르게 한다고?



들어가기

1. 지난 3일 동안 먹은 음식을 모두 적어 보세요. 그중 주재료가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에 모두 동그라미 쳐 보세요.

2. 위에 적은 음식 중 남긴 것이 있다면 왜 남겼는지 이유와 함께 말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로컬푸드 운동은 푸드마일리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어 봅시다.(106~107쪽)

2. 음식물 쓰레기양이 과거보다 현재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쓰고, 이외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추가로 적어 보세요.(108~110쪽)

생각 넓히기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못난이 과일? 못생겨도 맛있어요! 농가와 환경 모두 상생하는 가치소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3분의 1 정도가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여 쉽게 부패해 고농도 폐수가 되지만, 수질오염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악취가 심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을 심화시킵니다.

농산물등급규격에 미달하는 못난 과일이나 채소들을 버리지 않고 먹는다면 어떨까요? 외형이 조금 이상할 뿐 맛과 영양이 다르지 않다면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니까요.

2014년 프랑스의 한 마트 체인에서 “못생긴 당근? 수프에 들어가면 상관없잖아?”라는 문구와 함께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조명된 ‘푸드 리퍼브(Food Refub)’는 음식을 뜻하는 Food와 재공급품을 뜻하는 refurbished의 합성어입니다. 맛과 영양에는 문제없지만, 모양이 매끈하지 않고 흠집이 있어 상품 가치를 잃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캠페인입니다. 영국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못난이 채소 상품인 ‘Wonky Veg Box’에 “못생겼지만 저렴하다”는 광고를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미국 최대 대형 마트에서도 2016년부터 못난이 과일과 채소를 판매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채류를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에서 진행했던 우박 맞은 사과 기획전에서는 일명 ‘보조개 사과’로 불린 B급 사과가 일주일간 10t이나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겉모양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든 못난이 농산물로 음료나 과자, 소스 등과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블로그 2017.10.6.일자 게시물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hellopolicy&logNo=221107967985>) 재구성

1. 푸드 리퍼브 운동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2. 푸드 리퍼브 운동에 어울리는 표어를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활동하기

환경에 도움이 되는 하루치 식단을 짜고 필요한 재료를 써 봅시다.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115쪽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행동'을 참고하여 작성해 보세요.

시간	식단	재료
아침		
점심		
저녁		

5차시. 플라스틱, 골칫덩이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들어가기

1. 우리 집에서 지난 일주일간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수는 몇 개일지 대략 체크해 볼까요?

10개 미만	10개 이상 20개 미만	20개 이상 30개 미만	30개 이상 40개 미만	40개 이상
--------	------------------	------------------	------------------	--------

2. 그린피스는 250가구가 7일간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을 조사했어요. 조사 기간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은 총 1만 6,629개였다고 합니다.* 한 가구당 일주일 동안 평균 몇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버렸을까요?(*출처: 그린피스,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2021. 1. 15.)

()개

내용 확인하기

1. 버려진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재활용인 이유를 다른 처리 방법(매립, 소각)과 비교해 적어 보세요.(125~128쪽)

2. 플라스틱을 잘게 부숴 재생 원료로 만든 후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재활용 방법은 맨 처음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집니다. 최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어요. 이 기술은 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무엇인가요?(128쪽)

3. 다음 쓰레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되는 것인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담겨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언해 보세요.(131~134쪽)



생각 넓히기

1. 책 135~139쪽을 읽고, 선형 경제와 순환 경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2. 여러분은 OO기업의 디자인팀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한 가지 골라 순환 경제 구조에 맞게 제품을 디자인해 봅시다. (모든 요구 조건을 맞추기 힘들면 제품 성격에 맞게 2개 이상만 고려하여 디자인해 보세요.)

1.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화해 주세요.
2. 재활용이 쉽게 복합재질을 최대한 피하거나, 다른 재질들은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 제품 이름이 디자인된 라벨은 생략하되 우리 제품을 각인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주세요.
4.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으로 만들고, 수리하거나 리필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세요.

제품:

디자인:

활동하기

1. '쓰레기 백과사전' 사이트(blisgo.com/)에는 다양한 제품의 재활용 방법 및 처리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아래 제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1)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 하면 되나요? (○ / X)
- 2) 재활용이 불가능한가요? (○ / X)
- 3) 지구를 위해 고장 난 키보드는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2. 가장 가까운 리필스테이션을 방문하거나 포장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포장해 오는 실천을 한 뒤, 사진을 찍어 지구를 위한 소비를 인증해 봅시다.

6차시. 자동차가 멈추면 지구가 숨 쉰다



들어가기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길을 승용차를 타고 가면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까요?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통해 CO₂ 발생량과 발생량을 없애려면 몇 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한지 찾아 적어 봅시다.

- ① 지도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한 후, 길 찾기 버튼을 눌러 이동 거리(km)를 확인합니다.
- ②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누리집의 탄소발자국 계산기에 접속해 계산해 봅시다.

(<https://www.kcen.kr/tanso/intro.green>)

내가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일까요?
탄소발자국 계산기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탄소발자국 계산기

교통

- 이동거리(권장)와 연료비 중 한 가지만 입력
- 연료비 입력 시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연료 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 없음

이동거리 연료비

숫자로 입력 km/월 숫자로 입력 원/월

CO₂ 발생량 필요소나무

0.0 Kg 0.0 그루

CO₂ 발생 합계

CO₂ 발생량 필요소나무

0.0 Kg 0.0 그루

이전 다음

CO₂ 발생량: ()

필요 소나무: ()

내용 확인하기

1. 광화학스모그의 의미와 발생 원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147~148쪽)

4. 플뤼그스캄(Flygskam)의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 적고, 시민들이 플뤼그스캄을 실천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161~164쪽)

생각 넓히기

자료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탄소 배출이 더 적은 길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이동 경로를 구글맵 사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구글에 따르면 새로운 구글맵에선 교통 상황, 도로 경사, 차량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장 친환경적이고 연료 효율이 좋은 길이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저탄소 경로를 제시하면서 '2분이 더 걸리는 대신 연료 사용은 10% 절약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구글맵 측에서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협력해 이러한 친환경적 옵션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¹⁾

티맵에서도 경로 옵션 중에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경로인 에코 경로를 추가할 예정이라 해요. 첨단전자보조시스템(ADAS) 맵을 기반으로 경사, 굴곡 등 다양한 도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있어요.²⁾ 이제 운전자는 빠른 경로로 갈지, 저탄소 경로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적은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장 빠른 길 보여주던 구글맵, 이젠 저탄소 경로 추천한다>,《중앙일보》, 2021. 10. 7.

2) <T맵, '저탄소 경로' 골라주는 내비 서비스 낸다>,《한국경제》, 2022. 3. 22.

1. 저탄소 경로와 에코 경로가 무엇인지 자료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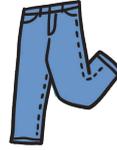
2. 위 사례와 같이 교통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활동하기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세요.

출발지		목적지	
-----	--	-----	--

7차시. 화려한 패션이 지구에 남긴 그림자



들어가기

여러분이 자주 입는 옷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옷은 무엇인가요? 각각의 특징도 함께 적어 보세요.

자주 입는 옷	자주 입지 않는 옷

내용 확인하기

1.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의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 적고, 패스트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171~172쪽)

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아 적어 보세요.(174~177쪽)

교사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해 볼까요?
지유	옷을 만드는 데 정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서 놀랐어요. 면의 원료인 목화 1kg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물은 약 (①)라고 해요.
연후	그래서 패션산업은 (②) 현상과 관련이 있대요. (②)란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고은	면이 아닌 합성섬유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대요. 합성섬유로 만든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실 조각인 (③)이 발생한다고 해요.
태경	맞아요. 다행히 몇몇 기업에서 의류의 세탁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교사	모두 책을 잘 읽었네요!

3. 슬로 패션(slow fashion)의 의미와 캡슐 옷장의 장점을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182~184쪽)

생각 넓히기

자료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멸정한 새 옷을 소각한다구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서 73%는 팔리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합니다. 패션기업은 왜 멸정한 옷을 버릴까요? 팔리지 않는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의류 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관리자 인건비 등이 지출되므로 기업에서는 옷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팔리지 않는 옷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KBS <환경스페셜>이 우리나라 매출 상위 패션기업 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류 재고를 소각하냐는 질문에 4곳이 '소각한다', 각각 1곳이 '공개 불가'와 '응답 거부'를 택했고 '소각하지 않는다' 답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문제는 패션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이 기업에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닌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해외에는 기업의 의류 재고 처리와 관련된 법을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업에 판매되지 않는 의류를 기부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독일은 재고 의류의 폐기 금지가 의무는 아니지만 폐기하는 분량을 문서화하고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우리나라의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기업 의류 재고 폐기금지법> 제정 모임을 진행해 패션기업들이 옷 생산을 줄이고 안 팔린 옷을 버리지 못하게 재촉하는 법을 만들거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멸정한 새 옷, 1초에 2.6톤씩 버려지는 이유>, <서울경제>, 2023. 2. 12 내용 재구성

1. 패션기업이 판매되지 않은 옷을 소각하는 이유를 적어 보세요.

2. <패션기업 의류 재고 폐기금지법>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지 적어 보세요.

활동하기

구매하고 싶은 옷이 있나요? 환경친화적인 의류 쇼핑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적용해 옷을 구입해 보고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나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나요?□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생산되었나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인가요?□ 옷장에 비슷한 아이템은 없나요?□ 내 몸에 잘 맞고 나와 어울리나요?□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요?□ 내가 이미 가진 옷과 잘 어우러지나요?□ 세탁과 관리가 편한가요?□ 중고 옷 가게에서 비슷한 옷을 찾아봤나요?
느낀 점

8차시. 택배 상자가 전국을 오가는 사이



들어가기

192~194쪽을 읽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적어 보세요.(195~196쪽)

- ① 우리나라의 한 해 종이 소비량을 나무로 환산하면 2017년 기준 약 ()그루에 해당한다.
- ②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연간 종이 소비량은 전 세계 1인당 연간 종이 소비량의 ()배가 훌쩍 넘는다.
- ③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복사용지는 ()%가 출력한 날 바로 버려진다.

2.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복사용지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에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찾아 적어 보세요.(196쪽)

3.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적어 보세요.(207쪽)

4. FSC 인증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고, 기업이 FSC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 보세요. (207쪽)

--	--

생각 넓히기

자료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가) 폐지는 그냥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입니다

박국자 할머니는 ‘고물 줍는다’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신은 나라에 좋은 일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했다. 실제 할머니가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 더미에 손 뻗을 때마다, 폐지와 알루미늄 캔, 고철이 자석처럼 달려 올라왔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순간이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실제로 이들이 ‘1차 자원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가난한 노인들은 개인의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다. 그런데 이 일은 동시에 사회적 가치도 지닌다. 널부러진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경 미화가 될 것이고, 그냥 버려질 쓰레기를 재활용하니,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가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일의 공적 가치는 무시되어 왔다. 그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계산한 폐지수집 노인들의 폐지수거량을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지 재활용 중 약 60.3%에 해당하는 양을 이들이 수집하고 있다.

출처: GPS가 알려준 진실 “노인들의 폐지 수집은 사회적 기여였다”, 《KBS뉴스》, 2022. 3. 24.

(나) 누구의 책임일까?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채 연립주택 골목에 나뒹구는 종이상자들. 단일재질로 분리배출되지 않아 재활용도 어렵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 쓰레기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필요한 상품만 꺼낸 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배출하는 소비자들일까? 분리배출이 어렵도록 상자를 포장한 기업의 책임일까? 골목 쓰레기 문제를 방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일까?



(가), (나)에 나타난 상황을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로 설명해 보세요. (200~202쪽)

활동하기

‘생각 넓히기’에 쓴 답을 참고하여, 폐지에 대한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폐지수집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봅시다.

- ① ‘국민생각함’에 접속하기(<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 ② ‘생각쓰기’란에서 ‘대화’ 클릭하여 글 작성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생각쓰기 생각참여 생각실현 나의 생각함 국민패널 🔍

HOME > 생각쓰기

새로운 생각쓰기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공공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대화

제안, 토론 등을 하고 싶을 때



투표

두 가지 이상에서 하나를 선택 할 때



설문

여러 문항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볼 때



